

‘고즈넉한 정원’ 벗삼아 여유로운 산책 예술로 위로 받네



남도 체험로드-완도

시간이 머문 자연 속 아틀리에 ‘부용동 정원’
세연정과 낙서재...일상 벗어나 여유 만끽

태몽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성백 미술관’
오방색·전통 문양으로 한국 전통 담아 완성

바다·김·전복 등 완도 맛과 향 가득 ‘완포’
김 아이스크림 즐기며 여행 피로 풀어볼까

◇자연을 벗 삼은 시인의 정원, 부용동의 여름= 연못에는 어린 연잎이 자라고, 정자에는 시간이 머문다. 여름의 어느날, 완도 보길도의 깊은 골짜기에서 조선의 시인 고산 윤선도가 남긴 풍경과 마주한다.

세상과 떨어져 지내고 싶어 정작한 이곳에서 세속의 번잡 속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총명한 한가로움을 선물받은 듯 하다. 오늘날 후세들은 이곳을 부용동 ‘정원’으로 부르며 있지만 고산 선생에게는 이곳이야말로 시를 짓고 삶은 빛은 장작의 공간, ‘자연 속 아틀리에’였다.

차를 타고 두시간, 배를 타고 30분, 노화도에서 다시 차를 몰아 찾아간 부용동 정원. 조선 중기 문인이자 학자, 시인이었던 고산 윤선도가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은거 생활을 했던 곳이다. 고산이 직접 조성한 생활공간이자 놀이공간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정원에 해당한다.

정식 명칭은 ‘보길도 윤선도 원림’. 고산은 이곳에서 조선 중기 대표적인 가사 문학 작품 중 하나인 ‘어부사시사(漁父詩)’와 ‘황원잡영’ 등 주옥같은 한시를 탄생시켰다.

윤선도와 보길도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1637년 2월,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윤선도는 육지에서 살아가는 것도 부끄럽다 하여 세상에 등을 돌리고 제주를 향해 떠난다. 배를 타고 항해 도중 보길도의 수려한 봉우리를 멀리서 보고 그대로 배에서 내렸다.

윤선도는 섬의 주봉인 격자봉 밑에 낙서재를 지어 거처를 마련했다. 조그마한 세 채의 집을 동쪽과 서쪽, 중앙에 짓고 기거했다. 그리고 85세 삶을 마치기까지 보길도 곳곳에 세연정, 무민당, 곡수당, 정성암 등 25채의 건물과 정자를 짓고 자신만의 낙원인 부용동 정원을 가졌다.



완도수목원 입구에 자리한 카페 ‘완포’



완도 보길도 부용동 원림 중심에 있는 세연지의 여름 풍경.

현재 복원된 부용동 원림(명승 제34호)은 고산의 5대 손인 윤위(1725-1756)가 24세 때 보길도를 답사한 후 보길도의 위치, 고산 유적지의 배치, 고산의 사람됨과 생활상 등을 소상하게 기록한 ‘보길도지’를 토대로 했다.

정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세연정과 낙서재, 동천석실 일원이다. 세연정은 부용동 원림의 중심에 위치한다. 윤선도가 보길도에 들어와 가장 처음 지은 건축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공들여 꾸민 공간이기도 하다. 연못은 개울에 보를 막아 눈에 물을 대는 원리로 판석보를 막아 조성됐다.

연못 중앙에 앉힌 세연정은 일반 누각과는 달리 가운데 온돌방을 두고 사방으로 창호와 마루를 돌렸다. 창호는 분합문(分閤門)으로 문을 모두 열어 걸면 사방이 개방된 정자가 되어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세연정을 나와 1km 정도 숲길을 오르면 낙서재가 나온다. 윤선도가 실제 거주했던 집이자 생애 마지막까지 머문 공간이다.

동천석실은 보길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정자로 산중턱에 자리한다. 격자봉과 마주하며 온 골짜기가 눈 아래 펼쳐지고 낙서재가 완하게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고산은 현실의 좌절과 갈등에서 벗어나 초속적 자유를 얻고자 했다.

◇태몽 그리는 화가 이주영이 만든 문화 거점, 성백미술관= 역사와 인물이 깃든 곳, 오늘날까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 고군면에 성백미술관이 자리한다. 태몽을 그리는 화가 이주영 관장의 삶이 펼쳐지는 아틀리에이자, 고군면 문화거점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곳이다.

군인이던 남편을 따라 전국을 다녔던 이주영 관장은 2012년, 고향으로 돌아와 집안 어른이 살던 집을 구입해 손보기 시작했다. 미술관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준비 기간만 2~3년이 소요됐다. 100년 가까이 된 주택을 개조한 성백미술관은 150평 규모다.

“일본 여행 중 마을마다 자리 잡은 작은 미술관들이 인상 깊었어요. 고향에 문화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시작된 미술관은 완도 최초의 개인 미술관이 되었고, 지금은 전시, 교육, 장학 사업까지 펼치는 지역 문화거점이 되었다.

서양화가인 이주영 관장의 그림 대다수는 ‘태몽’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아이들과 남편, 부모님의 태몽은 물론, 타인의 태몽을 그림으로 풀어낸다.

이 관장은 “태몽은 존재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아이가 누

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의미다.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나는 가지 있는 존재구나’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장의 그림에는 오방색과 전통 문양이 자주 등장한다. 불교적인 색감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민간 신앙과 삶의 염원이 담긴 문양들이다. “오방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에요. 색동저고리처럼 복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지요.”

성백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다. 때로는 예술 강의장이 되며, 아이들을 위한 그림 수업도 열린다.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이주영 관장이 함께 한다. 입장도 감상도 모두 무료다.

이 관장은 한국미술협회 완도군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완도군 관내 미술인 70여 명의 전시 기획과 운영을 돕고, 지역 예술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한다. 매년 성백미술관 이름으로 지역 학생 1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완도풍 맛과 향, 카페 ‘완포’= 초록의 물결이 출렁이는 완도수목원 입구에 특별한 공간 하나가 문을 열었다. ‘완포’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완도’를 이야기하는 문화 플랫폼이자 창작자들의 공방, 농부의 담방울이

스며든 작업장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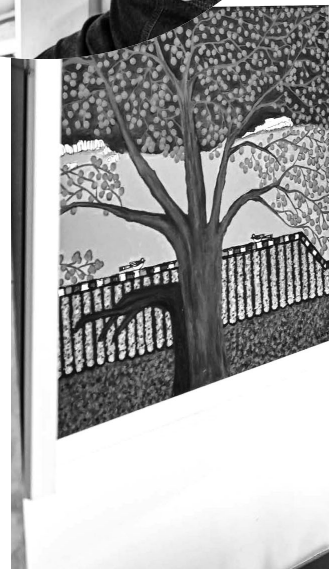
공간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깔끔한 인테리어 사이에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전시된 진열대다. 완도를 형상화한 바다빛 도자기, 김과 미역이 섞인 반지, 전복과 생선 모형의 뜨개 수세미, 전복껍데기를 활용한 차폐 공예 등 지역 작가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다. 카페 내 작은 로컬 공예 마켓처럼 둘러보는 재미가 더해진다.

‘완포’ 카페는 모링가 전문 매장이다. 이집트·인도에서 ‘기적의 나무’로 불리는 모링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완도의 기후와 맞닿으며 색다른 농업의 길을 열었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는 ‘김 아이스크림’. 완도산 김을 갈아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에 들기름과 참기름을 섞은 ‘링거 소스’를 뿌리고, 갓 구운 김에 싸서 먹는다. 또 하나의 시그니처 디저트는 ‘모링가 까눌레’. 프랑스 디저트를 완도식으로 재해석한 이 빵은 겉은 바삭, 속은 쫄쫄한 식감에 모링가 분말을 곁들여 건강한 단맛을 낸다. 모링가 특유의 알싸한 향은 살짝 감돌 뿐 부담스럽지 않아 아이들까지 좋아한다. 모링가를 넣어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도 인기가 좋다.

카페 옆 모링가 공장에서는 모링가 차를 가공하고 2층은 체험장으로 활용된다. 인근 어르신들을 초대해 공예 체험도 운영한다. 주변 농가의 농산물, 유자 와인까지 소개하며 로컬 농업의 판로 개척에도 앞장선다.

/이보람·정은조 기자 boram@/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태몽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주영 관장과 성백미술관 전시실에 걸린 작품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
일시 : 2025-07-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